

한·일 애니메이션 교류 선도... 닌텐도 스위치2로 실적 기대

대원미디어는 '달려라 하니' '천방지축 하니' '뚝고탁' '은하철도999' '월타의 기사' '떠돌이 까치' 등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은 물론 해외 애니메이션 수입 및 완구·게임 등의 유통을 통해 어린이와 어른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3D 애니메이션 '뚜바뚜바 눈보라' 'GON' 등의 작품을 국내외 방영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었고 3D 실사 결합 애니메이션 대작 '아머드 사우루스를 제작하면서 우리나라도 고퀄리티의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업계에 심어줬다.

방송·출판·완구·게임 유통 등을 담당하는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한 대원미디어의 설립자는 정욱 회장이다. 그는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고를 졸업하고 상경계 국내 최초의 애니메이션 '홍길동'을 만든 국내 만화계의 거장 신동헌 화백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1969년 아동용 만화 '초립동자'를 통해

대원동화는 일본 도에이 동화와 기술 제휴 및 수출 계약을 맺고 OEM 방식으로 '은하철도 999' '캔디 캔디'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하청 제작하면서 매출을 늘렸다.

1987년 국내 최초의 TV 애니메이션 '떠돌이 까치'를 제작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으며 1988년부터는 TV 애니메이션 제작에 힘을 쏟았다.

1991년에는 만화 잡지 '소년챔프'를 창간하면서 사업 분야를 넓혔다. 1992년 출판 사업부를 도서출판 대원(현 대원씨아이)으로 분사시킨 후 1995년 학산문화사를 설립해 만화·웹툰·웹소설·캐릭터 상품 등의 제작·유통을 하고 있다.

'포켓몬스터' 등 해외 유수의 애니메이션을 국내에 수입 및 배급해 온 대원미디어는 '도라에몽' '짱구' '맛말러' 등 TV 애니메이션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마야지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벼랑 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높은 작품성을 알리면서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2001년 대원방송 2005년 챔프비전을 설립하면서 방송 사업에도 진출했으며 2007년 3월 대원미디어로 사명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게임 유통도 담당하는데 2007년 닌텐도 DS 유통을 시작으로 2008년 4월 Wii 2012년 4월 3DS 2017년 12월 스위치 발매 등 닌텐도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통사업으로 수익을 확대했다.

하지만 닌텐도의 차세대 게임기 출시 예정에 따른 대기 수요로 연결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닌텐도 유통사업의 매출이 하락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대원미디어의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한 2563억



정욱
대원미디어 대표이사 회장

6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24억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줄었으며 당기순손실은 21억5000만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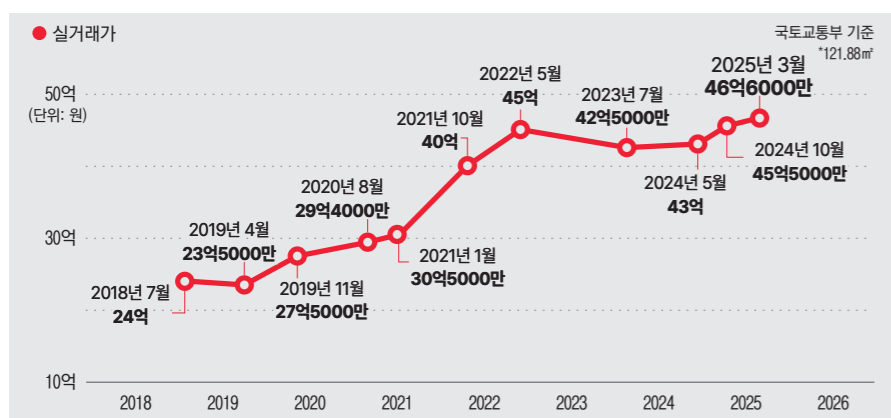
대원미디어 관계자는 "사업 영역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닌텐도 스위치의 후계 기종인 닌텐도 스위치2가 6월5일 발매 예정으로 매출에서 큰 반전을 기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래미안첼리투스(사진) 한 호실을 2018년 8월 30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66.17㎡(약 50.26평)·전용면적 124.02㎡(약 37.51평) 규모로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2월 매매된 49억9998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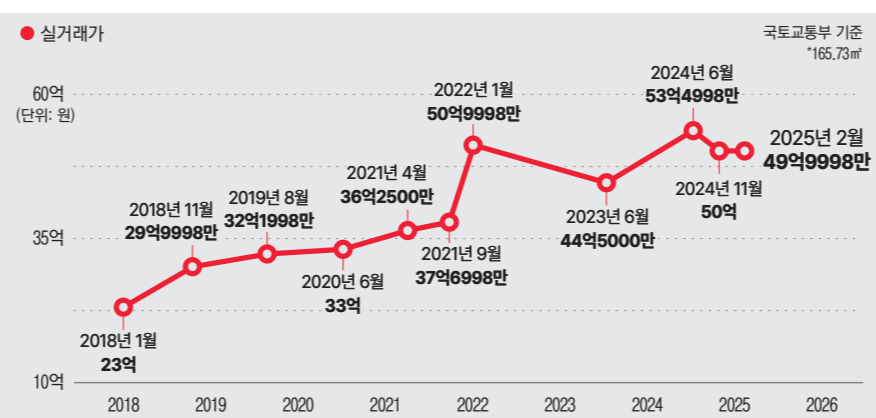
래미안첼리투스는 최고 56층·460가구·3개동으로 구성됐으며 각종 17층에 게스트 하우스·헬스장·카페 등 입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됐다. 각종 스카이라이프 활력을 불어넣고 대원미디어의 게임 유통 및 콘텐츠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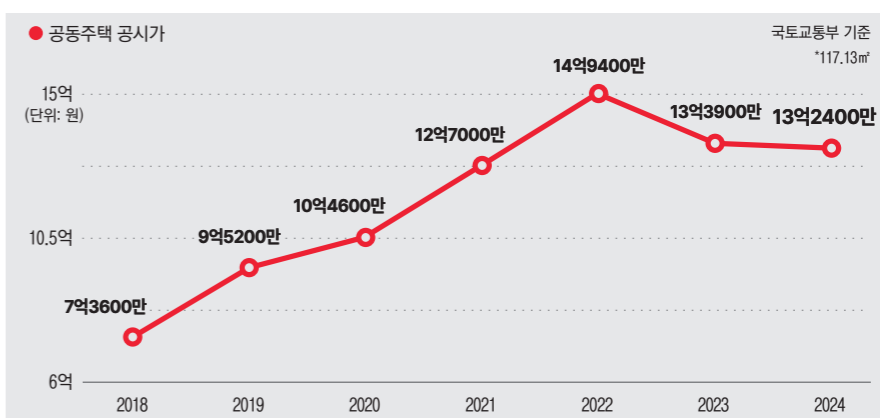
한강맨션



래미안첼리투스



한강대우



임정기

전서울대 의학과 방사선과학교실 교수 임정기 전 서울대 의학과 방사선과학교실 교수는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방사선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의대 방사선과학교실 전임강사·방사선과학교실 조교수를 거쳐 1983년 교수로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서울대 의대 학장·아시아·홍부영상의학 회 대회장·홍부방사선연구회장·서울대 의대 연구부학장·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 의회 기획평가위원장·대한의학회 학술진흥 이사 등을 지냈다. 2008년 서울대 학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교수 직접선거에서 1순위로 선출돼 주목받았다. 이후 2011년 서울대 연구부총장에 선임된 그는 "학장 임



기를 완수하지 못해 착잡한 심경이다"며 "권익 전 총장과 왕규창 전 학장·박용현 동창회 장·정희원 원장 등의 조언을 구한 결과 새물결 주어진 임무를 수락하기로 했다"며 학장직을 물러난 데 따른 교수들의 양해를 구했다.



신성환

현·홍익대 경영대 경영학전공 교수 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경영학전공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및 재무관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 위원·금융감독원 자문위원·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위원·한국금융연구원장 등 주로 금융계에 몸담아 금융정책과 현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했다는 평을 받는다. 문재인정부 때 강력한 가계부채 억제 대책을 비판하면서 "유동성을 제약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인수위원회에 임명됐다. 2022년 7월에는



전국은행연합회장 추천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선임돼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데 따라 적절한 수준의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내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금융위원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은경

현·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은경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벤자민 N. 카도조 로스쿨에서 지식재산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정책학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추계예술대 겸임교수·숙명여대 객원교수 등을 지낸 그는 2023년 5월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돼 예술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서초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았다. 임기는 올해 5월 7일까지로 한 달가량 남았다. 2015년 설립된 서초문화재단은 '서초 클



래시 시리즈, 김민주 작가 '말의 달'전, 피아노 교수음악회 'Piano & Talk' 등 지역 주민의 품격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공연·전시·지역문화사업·도서관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최 광 저음

The BUCK STOPS here!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피플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관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피플 (02-2277-0220)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